무형문화재 · 유산 경쟁력 강화 나선다

세계무형유산포럼 전주 개최… 시, 국비 2억원 확보

내년 개최되는 포럼시작으로 2년마다 진행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회원국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무형유산포럼을 개최하는 등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주는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계승해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데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무형유산 관련 국제적 기구들도 전주에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손꼽혀왔다.

전주시는 올해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를 위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전주가 보유한 무형문화재 등 무형유산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준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내 229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지수 1위이자 무형문화유산의 보고인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무형유산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전행사의 성격으로 세계무형유산관련 국제학술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18년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을 시작으로 2년마다 포럼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풍패지관의 원형 복원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전주 풍패지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52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중심건물인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객사) 주변에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국립무형유산원이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2017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으로 지역 내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목록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전주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발굴해 목록을 만들고, 기록화 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발굴한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집을 발간하고, 공연과 시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존 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와 2017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에 따른 사업 등으로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계무형유산포럼과 미래유산 프로젝트, 핸드메이드시티 등을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해 전주를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선자장 등 국가무형문화재 2명을 비롯해, 판소리, 판소리장단, 시조창, 영산작법 등 예능분야 14종목 23명과 선자장, 악기장, 우산장, 침선장 등 기능분야 14종목 19명 등 총 42명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꿈과 희망 가득한 새해 새 출발도 신명나게

김제지평선아카데미, 5일 새해 첫 강연

김제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만 11년째를 맞는 2017년에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신명나는 새 출발을 위해 흥돋이 국악으로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지난 2006년 2월 24일 첫 개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지평선아카데미는 김제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대표적 모습으로 국내 저명한 명사들의 초청 강연 뿐만 아니라 관내 학습동아리와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매년 행복한 명품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다.

함께하는 미래에 배우는 기쁨, 나누는 보람으로 알차게 구성한 새해 첫 강연 1월 5일(제495회)에는 한국전통국악원 원장인 김민숙 명창을 초청 "세계로 가는 국악"이라는 주제로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수강생 모두가 국악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일(제496회)에는 이광기 탤런트 겸 방송인을 초청, "따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어려웠던 시절, 아이티 대지진의 참상을 목격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그것을 통한 행복한 삶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1월의 마지막 강연인 19일(497회)에는 김재남 한국교통방송MC를 초청 "김제시민 공동체 구현 '소통문화 스토리텔링'"이란 주제로 소통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소통을 통한 김제시민의 공동체 구현 방법 및 시민이 행복한 김제시 만들기란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 또한 이날은 금산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금산면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의 멋진 식전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은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행복한 삶 추구에 있어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항상 준비하는 만큼, 2017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국악연수생 모집 역대 최다기록 달성

전북도립국악원(원장 곽승기)이 1986년 개원 이래 꾸준히 실시해 왔던 연수생 모집에 역대 최다인원을 달성했다.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2일부터 개강한 '2017년 상반기 국악연수' 등록생은 1,64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악원은 주차난으로 인한 연수생 불편감소를 위해 수업 쉬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 연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국악연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전통국악의 성악·기악·타악 분야 13개 과정, 주·야간 90개 반으로 편성돼 운영된다.

수업은 연수생 실력에 맞춰 초급·중급·고급으로 세분화해 매일 아침 09시 50분부터 저녁 9시20분까지 진행된다.

도립국악원 국악연수는 매년 3,0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두 7만 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국악원이 1986년 개원 이래 꾸준히 실시해 왔던 연수생 모집에 역대 최다인원을 달성했다. 사진은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국악연수생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2명 모집

완주군은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달 19일까지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완주군의 역사, 문화재, 관광지, 생태환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미만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면 올해 3월부터 완주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해설 및 정보 제공, 각종 축제 진행시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팀(063-29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 자신은 온전한가?

▶ 한옥마을 백희갤러리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막연한 현실을 마주하는 개인의 무기력함 표현 내달 15일까지 전시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백희갤러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청년작가들을 초정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Rapid Eye Movement)' 릴레이전을 펼치고 있다.

에슐리 여(싱가폴), C·U·O(한국), 샤오페이 유에(중국), 황지희(한국)로 구성된 작가들은 영국의 첼시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며 교감을 나눠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각자의 색채로 환영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은 현실에서 암묵적 강요를 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의 모습과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려는 내면의 욕망 사이의 갈등을 작품에 담아낸다. 작가들의 이 같은 표현은 막연한 현실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전시의 개막을 선보인 에슐리 여는 여행 또는 일상에서 발견한 단상을 수행에 가까운 드로잉을 통해 풀어냈다.

에슐리 여의 바통을 이어받은 C·U·O는 3일부터 전시를 갖는다. 작가는 여성성의 상징처럼 치부되던 치장 혹은 화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피부위에 씌워지는 겹들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작가 스스로를 익명의 존재 혹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샤오페이 유에는 영국의 시인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시 'The Third Thing'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사람과 사람이 맞닥트렸을 때 그 둘을 관계로 연결시키는 무언가에 주목해왔고 이번 전시에서는 부드러운 색감의 수채화를 도구로 두 여성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공기를 밀도 있게 추적했다.

릴레이전의 마지막 작가인 황지희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과 과열되는 대립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우화의 형태로 표현한다. 주재료인 왁스의 물리적 특징을 도구삼아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여러 상관관계와 한 개인이 사회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표현한다.

전시는 오는 2월 15일까지 2달간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예지원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을 위해 2017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 기반구축, 문화예술 교류활동, 신진예술가 등이며 사업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개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자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개인은 자체부담금이 면제된다. 단체는 지원유형을 달리해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진예술가의 경우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하 예술인(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지원 가능 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7년 1월 3일〉

▷쥐띠
48년생: 타인과 협동하면 좋은결과가 따른다.
60년생: 예상밖의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미리 알고 대비하라.
72년생: 계획했던 일에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수가 있으니 자중하며 양보하는 것이 좋을 듯.

▷소띠
49년생: 큰 움직임만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이니 경거망동은 삼가라.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이다.
74년생: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6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하게 된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윗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

▷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결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말띠
54년생: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동기간과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혼자 해결해 나가야만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왈가왈부 하다가는 시비수를 면치 못한다.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사리에 치우쳐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대가없이 주는 사람이 아니다.
9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매사에 차분하게 대응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해라.

▷개띠
46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70년생: 작은 배려는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함을 잊지마라.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

▷돼지띠
47년생: 뜻밖의 실수로 인해 곤란해질 수 있다.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나친 호의를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겉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